논어 5편 공야장 1장 · 원문·풀이

子謂公冶長, 「可妻也；雖在縲紲之中, 非其罪也。」以其子妻之。

독음 ·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류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공야장이 감옥에 있었어도 그의 죄가 아니었음을 알고 사위로 삼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公 공변될 공 공 / 冶 단련할 야 야

長 길 장 장 / 可 옳을 가 가 / 妻 아내 처 처 / 也 어조사 야

雖 비록 수 수 / 在 있을 재 재 / 縲 포승 류 류 / 紲 고삐 설

之 갈 지 / 中 가운데 중 중 / 非 아닐 비 비 / 其 그 기

罪 허물 죄 죄 / 以 써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